

INTELLIGENCE CODE (첩보 코드) [#1106425]

PART I , ARENA OF GREAT HEROES (위대한 영웅들의 전쟁)

- 저자: BJ Avilla (정진형)

[간략한 줄거리]

미국 첩보 전쟁은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 아일랜드 독립 무장 투쟁 단체인 PIRA (Provisional Ireland Republican Army)ⁱ의 콜린스 (Thomas Collins) 장군에 맞선 미국 육군의 레미스쿠 (Kevin Remiscu) 장군의 전투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친구이며 영국사관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두 사람이지만, 아일랜드 태생의 콜린스의 퇴학을 계기로 두 사람은 각자 아일랜드와 미국으로 가서 이후 각국의 장군으로까지 승진하게 된다. 콜린스의 아내인 아이린(Irene)은 가장 위협적인 바이러스 무기를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콜린스는 아이린이 개발한 바이러스 생화학 무기로 영국과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결국 영국은 바이러스 무기로 인해서 초토화 된다. 콜린스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아서왕(King Arthur)의 화신이라고 믿었고, 자신은 진정한 켈트의 영웅이며, 앵글로-색슨의 침입을 물리치는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을 꿈꾸며 자라왔고, 이에 매료된 생화학박사이자 드루이드(Druid)ⁱⁱ 주술사이기도 한 아내 아이린은 콜린스를 도우게 되고, 그의 아일랜드 독립을 넘어선 세계 정복의 야심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콜린스는 영국 공격 후에 아서왕이 호수에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진ⁱⁱⁱ 엑스칼리버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부하들과 명목상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을 해방할 목적으로 이집트 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 맨체스터의 비밀기지를 탈출하여, 시나이(Sinai) 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위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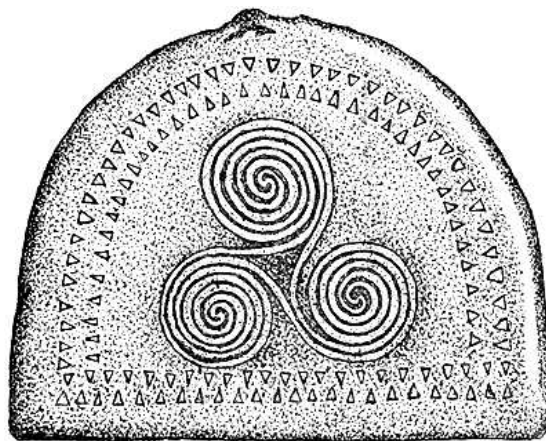
이들이 팔레스타인 해방^{iv} 캠페인을 위장한채 가자(Gaza) 지구에 진입할 무렵 우연찮게 이스라엘의 하레디(Haredim: Neturei Karta)^v라고 하는 극보수 (ultra-orthodox) 유대인들을 통해서 엑스칼리버가 웨일즈의 한 호수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진 후에 현재 카슈미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 시오니즘을 앞세운 하레디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세주로 인정받아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된다. (하레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카슈미르로 간데에는 잃어버린 유대 10부족^{vi}의 일부가 카슈미르에 있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는데, 이 사실은 예수의 알려지지 않은 사생활 기간과 십자가에 못박힌 후의 카슈미르로 향한 그의 행적과 카슈미르에 있는 Roza Bal^{vii}이라는 그의 묘지에서부터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레미스쿠 장군은 가자(Gaza)에서 전투 끝에 기억을 상실하였지만,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게발드 대령의 몸을 통해서 회복하고, 콜린스를 막으러 카슈미르^{viii}로 가게 되고... 콜린스의 아내인 아이린은 자신의 남편의 사된 욕망 때문에 그를 등지고, 세상을 그의 사악한 욕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어린시절 친구이기도 한 레미스쿠를 도와서 카슈미르에 인접한 서티벳의 마나사로바 호수에서 콜린스를 무찌르게 된다. 마나사로바 호수에 가게된 것은 엑스칼리버의 힘을 완성시킬 성배(Holy Grail)^{ix}가 그 호수에 있음을 알았던 것이었고, 레미스쿠와 아이린은 그 호수에서 성배의 힘과 아이린의 드루이드 주술의 힘을 빌려서 콜린스의 엑스칼리버를 무찌르게 되면서 전쟁은 일단락 난다. 하지만, 기억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레미스쿠 장군도 콜린스를 무찌른 후에 죽게 되고, 아이린은 남편과 옛친구를 잃은 슬픔을 등지고, 미국으로 후송되어 미국내에서의 사이비 종교와 미국 정부를 배신한 합참 부의장(Rothschild Zionism)^x과 사악한 과학자(anti-Rothschild Zionism/ Heaven's Gate)와 맞서 싸우지만, 미국이 최첨단 첩보를 위해서 마련한 모든 군사와 국가 기밀을 결국에는 모리스 박사에게 의해서 도난 당해 그 정보가 북한으로 유실되면서 1부의 막을 내리게 된다.

1부 마지막에 예수가 아이린에게 계시하기를 동북아에서 '명예'를 건 한중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받게 되고 (제2부), 그 후에 티벳에서 다시 한 번 엑스칼리버와 성배의 힘을 되찾고, 진정한 윤리를 완성한 달리이라마의 계승자가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로 나타날 것(제3부)을 예언 받게 된다. 하지만, 아이린은, 자신들의 존재가 그녀에 의해서 알려질까봐 위협을 받은 미국내의 사탄주의(Rothschild Zionism)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된다.

[소설에 나타난 주요 쟁점들]

- 1) 종교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세 곳: (북부) 아일랜드 [청교도 vs. 카톨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vs. 이슬람교], 카슈미르 [힌두교 vs. 이슬람교] - 이 소설의 주요한 세가지 지리적 배경
- 2) 영웅들의 충돌: 미국의 군사&첩보 우월주의 vs. 켈트 영웅주의 (킹 아더) vs. 근본주의 유대인의 사상 vs. 역사적 예수 - 영웅주의적 사상의 대결 [절대주의적 윤리관]
- 3) 환생과 재현, 그리고 허무한 영웅주의: 카르마에 의해서 계속 재현되고 반복되는 영웅들의 숙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 4) 고대 켈트의 종교의 상징들 (오웬, 트라이스켈리온 등)에 대한 이해 및 그에 나타난 코드의 분석
- 5) 시오니즘 (Zionism) vs. 반시오니즘 (anti-Zionism) [혹은 정치적 시오니즘과 종교적 시오니즘]: 이스라엘 정부에 반대하는 하레디(Haredim)으로 불리는 초근본주의(ultra-orthodox) 유대교 세력과 팔레스타인 문제
- 6) 잃어버린 유대인 부족(10 lost tribes)과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의 문제 - 예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가지 증거들과 십자가에 못박히신 이후에 행적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정황들
- 7) Bio-chip ID를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정체성과 윤리의 문제, 그리고 국가적 위협의 노출될 위험성에 대한 고려



[드루이드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Triskel:
이 소설에서 말하는 '코드' 분석의 근간이 되는 상징]



[이스라엘 정부의 세속주의적 시오니즘에 항의하고 시위하는 하레디(Netrei Karta) 유대인들]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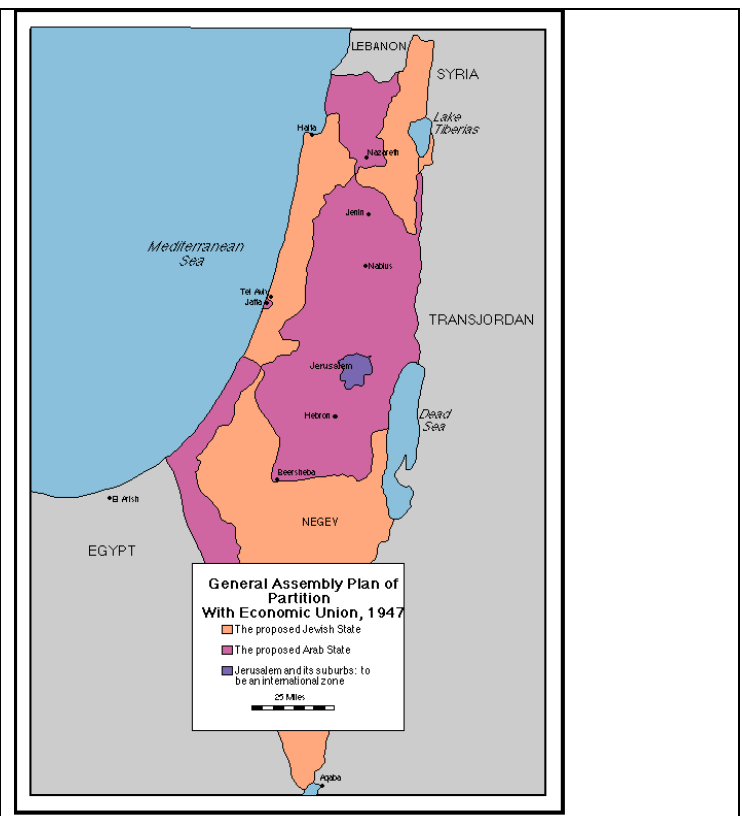
ⁱ I.R.A., 즉 Irish Republican Army는 아일랜드에서 부활절의 봉기로 일어난 반 잉글랜드를 기치로 한 아일랜드 독립운동군을 일컫는 말로서 마이클 콜린스에 의해서 창설된, 1919년에서 1921년까지 활동한 군대를 말한다. 그 후 영국과의 조약으로 아일랜드는 독립을 얻게 되지만 벨파스트를 중심으로 한 북아일랜드를 잃게 된다. 이러한 북아일랜드 소실에 반대하고 조약에 반대한 반조약의 단체가 내전을 일으키고 1922년부터 1969년까지 활동하게 되면서 I.R.A.는 계속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사실상 1969년도에 I.R.A.는 활동을 중지하게 되나, 대표적으로 명맥을 잇는 P.I.R.A.는 벨파스트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테러 활동으로 반 영국 무장 투쟁을 이어오다가 2005년도에 무장해제를 선언하게 된다.

[참고] 북아일랜드 종교분쟁의 배경: 북아일랜드는 독립후에 영국에 의해서 얼스터 지방이라고 불린다. 북아일랜드의 종교 갈등은 18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17세기 올리버 크롬웰의 침공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된 아일랜드에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북아일랜드의 얼스터에 이주 온 장로교인들은 가톨릭 신자들을 밀어내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수백 년이나 영국에서 온 개신교인들에게 차별과 억압을 받았고, 이들의 불만은 부활절 봉기(1916년), 아일랜드 공화국군결성 등의 무장투쟁으로 폭발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톨릭을 신봉함으로써 아일랜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도 개신교 교인들의 아일랜드 지배에 기인한다. (또한 16세기의 영국의 헨리 8세에 의해서 내려진 주장령에 의해서 로마교황청과 독립한 성공회의 신도들도 있다.)

ⁱⁱ **드루이드**는 기원후 1세기까지 갈리아에 있었던 켈트 다신교의 성직자이다. 켈트족이 살았던 다른 지역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 제국의 기록에는 2세기 무렵 드루이드들이 없어졌다고 되어 있으나 아일랜드 섬과 브리튼 섬에는 보다 이후 시기까지 드루이드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루이드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오직 말로써만 전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때문에 드루이드에 관한 기록은 고대 로마의 작가들과 기독교 전파 이후 수도원에서 기록된 문헌들과 같은 것에 단편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로마인들은 드루이드가 만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과 윤회를 믿고 있었고 인신공양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ⁱⁱⁱ **킹 아서**는 말린이라는 마법사가 준 엑스칼리버를 통해서 웨일즈 지방의 영국의 왕이 되고, 그 당시 침입한 앵글로 색슨을 무찌르고 영국을 지킨 수호신 같은 존재이나 자신의 사촌인 모드레드의 배반으로 힘을 잃고 엑스칼리버를 버리고자 한다. 베디비아 경은 엑스칼리버를 웨일즈의 호수에 버리고, 이를 물속에서 올라온 손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이 물속에서 올라온 손이 익히 알려진 레이디 오브 레이크의 손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세주가 찾으러 올 것이라고 믿은 유대인의 손이라는 것이다.

^{iv}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가자와 웨스트뱅크에서 일어난다. 팔레스타인은 유대 왕국이었을때도 그랬지만, 로마에 의해서 해체된 이후에도 수많은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16세기 부터 1920년대까지 지배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이어서, 2차 대전후까지 식민지를 유지하던 영국에 의해서 주권의 문제가 논의되고, 유엔은 2차 대전후에 주권의 공백 상태가 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분할안(United Nations partition plan for Palestine, UN Resolution (GA 181))을 1947년도에 제안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을 앞세운 유럽각지의 흠어진 유대인들은 19세기 말에 정치적 운동으로 주창된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하게 되고, 가자와 웨스트뱅크 지역에 난민촌을 만들어 그들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핍박하게 된다.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세력은 크게 두개로 나뉘는데 웨스트뱅크를 중심으로 한 평화적 독립 운동을 펼치는 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이 있고, Gaza를 중심으로 무력 투쟁을 펼치는 하마스(Hamas)가 있다.



v 세속주의 (Hiloni), 보수주의(Masorti), 정통주의(Haredi 혹은 Dati) 유대교 운동: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그들 자신들을 힐로니(hiloni, 세속주의)로 기술한다. 대략 15-20퍼센트가 그들 자신들을 하레디(haredi, 극단적 정통주의) 혹은 다티(dati, 정통주의)로 기술한다. 나머지는 그들 자신들을 마소르티(masorti, 전통적으로 유대교 전통들을 지키지만, 정통주의만큼 교조적이지 않다.)로 기술한다.

- 정통주의 masorti 운동들은 믿음에 있어서 모두 매우 흡사하다. 정통주의가 아닌 사람은 이들 사이의 차이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체 토라를 주셨다고 믿고 있다. 전체 토라는 성문 토라(모세오경), 성문 토라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구전인 구전 토라를 모두 포함한다. 그들은 토라가 진실하며, 온전하고 변경(變改) 없이 전수 되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토라가 비유대인에게는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을 구속하는 613개의 미츠보트(mitzvot, 계명들)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

- 개혁주의 hiloni (세속주의) 유대교인들은 토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개혁주의 유대교인들은 자료설과 편집설과 같은 성서 저작권에 관한 비평적 이론을 수용한다. 따라서 개혁주의 유대교인들은 계명들의 준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의 가치들과 윤리들의 상당부분을 일부 관행들과 문화들과 더불어 지킨다. 기본적으로 원조적인 미국 개혁주의 유대교의 견해들은 '피츠버그 강령'(Pittsburgh Platform)에 정립되어졌다.

- 보수주의 haredi 유대교는 정통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성장하였다. 비록 그것이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 유대인 신학대학원에 뿌리들을 두고 있지만, 1913년 솔로몬 셰흐터(Solomon Schechter) 박사에 의해서 보수주의 유대교 연합회당으로써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보수주의 유대교는 진리들이 유대인 성서 속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유대인 저술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인간들에 의해서 전달되었으며, 인위적 성분을 담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보수주의 유대교는 일반적으로 할라카의 구속력을 수용한다.

vi 유대민족의 분류

Reuben/ Simeon/ Levi/ Judah/ Issachar/ Zebulun/ Dan/ Naphtali/ Gad/ Asher/ Joseph/ Benjamin

이 중에서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것인 유다족이며 나머지 북부 왕국의 부족들은 전세계에서 흩어졌다고 하는 것이 잃어버린 유대민족의 설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한 곳이 카쉬미르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데에는 카쉬미르, 아프가니스탄과 북부 파키스탄의 민족인 파슈툰족의 DNA 분석결과 나온 설이며, 이미 이 당시에 실크로드의 일부인 사막길, 오아시스길 등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소설에서 예수는 유대민족으로서 이미 삼촌인 아라메티아 조셉을 따라서 12세에서 30세까지의 사생활 기간 동안 카쉬미르를 포함한 중국까지도 여행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 당시에 예수는 이스라엘은 위험한 곳이며,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카쉬미르로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단지 바빌론 탈무드에 나와있다는 것이 하레디 유대인 랍비들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곳에 엑스칼리버가 있으며, 궁국의 구세주가 나온다는 예언도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다.

vii 로자발 (Roza Bal): 카쉬미르의 수도인 스리나가르에 있는 이 무덤은 애초에 무슬림 성자의 무덤으로 알려졌으나 몇몇 서양학자들에 의해서 이 묘지가 기원후 1세기경, 즉 무슬림이 발생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며, 관의 머리 부분이 동쪽을 향한다는 점에서 무슬림의 묘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고, 예수의 묘지라는 증거들을 찾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Roza Bal The Tomb of Jesus*, Fida M. Hassnain & Suzanne Olsson, BookSurge Publishing, 2008.을 참조) 하지만 무슬림들의 반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골의 DNA 검사등이 실현되지는 않아서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진 장소이기도 하다.





viii

^{ix} 거룩한 잔 또는 신성한 술잔, 성배(聖杯)는 문학 작품과 일부 기독교 전승에 등장하는 성유물로서, 일반적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했던 술잔으로서 기적의 힘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거룩한 잔의 전설은 예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베르 드 보롱이 쓴 《아리마태아의 요셉(Joseph d'Arimathie, 12세기 후반 작품)》에 따르면, 아리마태아의 요셉이 예수로부터 거룩한 잔을 선물 받고 그레이트브리튼 섬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을 토대 삼아 후대에는 아리마태아의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매장하면서 그 피를 거룩한 잔에 받았다는 것과 그레이트브리튼 섬에서 거룩한 잔을 지킬 수호자들을 임명했다는 이야기 등이 생겨났다. 거룩한 잔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아서 왕 문학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크레티앵 드 트루아의 작품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켈트족 신화 속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진 가마술과 기독교 전설이 융합되어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성배와 성창은 원탁의 기사들중에 가장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알려진 란슬롯의 아들 갤러헤드에 의해서 찾아진다. 하지만 그도 성배와 성창을 찾고 죽는다. 현대까지의 고증에 따르면 스페인의 발렌시아 성당 (Cathedral of Valencia, Spain)의 것이 진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x 시오니즘은 유대민족의 이스라엘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유대민족 선민주의를 말한다. 하지만 이 시온주의는 종교적 시온주의와 세속적 혹은 정치적 시온주의의 두가지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극보수주의 하레디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시온주의는 세속적 시온주의를 말한다. 원래 종교적 시온주의는 토라에 의해서 예시된 메시아에 의해서 폭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평화와 갈등이 해소되어 유대민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이상주의적인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극보수주의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시오니즘은 유대인인 헝가리 저널리스트 테오도 헤르첼 (Austro-Hungarian journalist, Theodor Herzl)에 의해서 1897년에 주창된 세속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이 세속주의적 시오니즘은 바로 홀로코스트를 감행한 나치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자들이며 또한 식민주의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온 동서의 대립, 즉 유대-기독교와 이슬람교와의 역사적 갈등에 의해서 생긴 정치적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올바른 종교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유대인을 대변하는 사상이 아니라, 서구 세계의 기독교 유지를 위한 정치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이스라엘 정부가 자신들의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 열강들의 식민정책의 연장선상에 서서, 기존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인들을 핍박하고, 무력으로 응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반발하여 세계 각지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나, 언론에 의해서 축소 보도되는 실정이다. 사실상 로스차일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정치적-세속적 시온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필요도 없고, 유대교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많으며, 심지어 미국 정부의 핵심관료들이 모드 로스차일드 시오니즘을 신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David Icke) 도 있다.